月間建築情報

'80. 5. 21 ~ 6. 20.

2萬수용 專用蹴球場추진, 서울운동장 뒤편에

西独의 특수土質分析 같은 흙깔기로

대한축구협회는 5월21일, 서울운동장 뒷편 전매청 창고 대지에 축구장을 건설토록 서울시에 요청,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이곳에 蹴球專用球場을 건설하기 위한 세부작업에 들어갔다.

蹴球은 서울시가 이 일대의 토지 매입을 주선해주면 協이곳에 50億원을 투입, 1만5천~2만 수용규모의 축구장을 건설하고 駐車場管理室등 부대시설을 건설하겠다고 제의했다.

蹴協은 여기에 축구장을 건설할 경우, 잔디나 人造잔디를 깔지않고 독일 축구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特殊土質을 도입, 성분을 분석한 후, 이와 꼭같은 흙을 국내에서 만들어 깔기로 했다.

技術士 応試, 土木·建築分野가 68%차지

機械·電気·化工分野는 저조

최근 韓国技術検定公団이 분석한 "금년도 技術士検定応試者分析"에 따르면 올해 技術士 응시자는 19分野83種目에 2,468명으로 지난해 2,539명보다 줄었지만 土木·建築, 종목의 응시율은 68.8%로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5월 18일 筆記試験이 치러진 技術士 자격검정의 종목별 응시상황은, ▲土木·建築 1,699명(68.8%) ▲機械 179명(7.3%) ▲電気 120명(4.9%) ▲化工 115명(4.7%) ▲国土開発 110명(4.5%) ▲産業応用 79명(3.2%)의 순이다.

그리고 응시자가 전혀 없는 종목이 8개 종목에 이르고, 10명 이하의 응시자를 보인 종목도 50개 종목이나돼 편중현상이 매우 심했다.

이중 国土開発分野의 大気·水質종목의 증가세가 뚜렷해 각광받을 직종으로 분석됐다.

学歴別分布는 大卒 94.9%로 단연 우세하고, 専門大卒이 3.6%, 高卒이 1.5%이다. 身分別로는 현 産業体의 管理者가 79.1%로 가장 많고, 다음이 公務員·教職者·軍人·研究員의 순이다.

10大 観光圈지정, 주요名勝地中心

地域特殊性 살려 集中開発계획—교통부

5월22일 교통부가 마련한 観光資源開発計劃에 따르면 전국의 주요 名勝地를 중심으로 10大観光圈을 지정, 지역별 특성을 살려 集中開発한다는 것이다.

교통부는 이를 위해 10大観光圈 지정을 끝내고 이에

따른 基本開発計劃을 수립중이다.

교통부는 이 10大観光圈内에 観光開発 振興基金을 지원, 호텔·国民宿舍·休憩施設·民俗公演場·게임施設·簡易食堂·어린이놀이터등 각종 附帶施設 및 委托施設을 갖추도록 할 방침이다.

교통부는 이같은 観光地開発計劃이 확정되는대로 年内에 事業에 着手, 오는 86년까지 開発을 마치도록 했다.

10大観光圈은 다음과 같다.

▲首都圈=서울·仁川·安養·水原·板門店·北漢山城·南漢山城.

▲釜山圈=海雲臺·東萊·太宗臺·梵魚寺·通度寺·鎭海.

▲慶州圈=慶州·浦項·蔚山·周旺山.

▲雪嶽圈=雪嶽山·五臺山·江陵·春川.

▲済州圈=済州島 全域.

▲閑麗水道=忠武公遺蹟地·梧桐島·閑麗海山·国原工団.

▲扶餘·公州圈=扶餘·公州·儒城·温陽·鷄龍山·大川.

▲智異山圈=智異山·南原·曺渓山.

▲茂朱圈=茂朱九千洞·俗離山·伽倻山.

▲内藏山圈=内藏山·無等山·母岳山·白羊寺.

27평이하 国·公·市有地, 占有者 원하면 賣却

節次간소화, 年内 처분——서울시

서울시는 5월23일, 시민들이 占有하고 있는 27평 이하의 国·公 및 市有地 가운데 정부나 서울市가 사용하지않는 土地는 占有者가 원할때는 모두 매각키로 결정, 시민들의 신청을 받아 각 구청이 年内에 처분하도록 지시했다.

시는 이번 매각에서 시민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복잡한 節次를 없애고 관할구청에 拂下申清만 내면 측량·조회 등 모든 불하절차를 시가 맡아 처리해 주기로 했다.

27평 이하의 매각대상용 公共財産은 ▲市有地 2298筆地에 61,127평, ▲国·公有地 1 009筆地에 2,014평등 모두 83,142평이다.

基幹産業유지할 牙山湾開発 앞당겨 8월 착공

工業·住居地등 3億평, 고용증대·경기부양책

基幹産業들이 유치될 牙山湾開発事業이 오는 8월부터 착공될 예정이다. 5월 26일 관계당국에 의하면 牙山湾 지역의 완만한 丘陵地와 準平原 및 干潟地를 매립, 광활한 3億평을 개발해 1억5천150만평은 工業地域, 5천300만평은 住居地域이므로, 나머지 9천550만평은 기타 지역으로 개발하여, 광활한 浦升地区에는 第2製鉄등 鉄鋼 및 関聯産業을, 都市地域과 인접한 内陸地域에는 首都圈内移転工場을, 그리 매립한 지역은 石油精製·石油化学·非鉄金属·機械등의 기간산업을 각각 유치하게 되는데, 정부는 雇備増大와 景気浮場策의 하나로 당초계획보다 앞당겨 오는 8월 착공한다는 것이다.

麻浦路 再開発 建築計劃등 확정

10~15층 아파트·빌딩 52棟신축

서울시는 再開発地域으로 지정된 麻浦路 주변 131,000평중 1차로 제1지구(서울大橋~孔徳洞로터리)주변 59,900평에 대해 道路·駐車場·公園등 공공시설계획을 포함한 土地利用計劃을 매듭짓고 이에 따른 각 劃地別 건축계획을 확정했다.

서울시가 확정한 麻浦路 再開発地域 제1지구 建築計劃에 따르면 총 51개 劃地에 52建物이 들어서게 되며, 가든호텔 등 7개 建物은 존치된다.

새로 들어설 建物은 10~15층 규모로 事務室·아파트·近隣生活施設등으로 활용된다.

이 일대 再開発事業은 土地등의 所有者 또는 이들로 구성된 再開発組合이 시행하게 되며, 地区内 公共施設은 再開発事業施行者가 공동부담하게 된다.

한편 이 일대에는 再開発事業과 함께 公園·駐車場·緑地등 공동시설이 조성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孔徳公園 483평, ▲桃花公園 404평, ▲桃花제1駐車場 555평, ▲桃花제2駐車場 293평, ▲緑地 265평.

地籍관계民願의 電算化 5個年計劃 추진

서울시, 1차로 81년에 鐘路区부터

5월28일 서울시에 의하면 地籍測量의 정밀도를 높이고 地籍業務의 과학적 처리를 위해 電算化5個年計劃을 추진 중인데, 1차로 81년부터 鐘路区庁 관내의 地籍図와 林野図를 컴퓨터에 수록, 地籍民願을 신속·정확히 처리하도록하고 앞으로는 서울全域의 地籍을 電算化한다는 것이다.

지적업무가 電算化되면 地籍測量의 정밀도를 높이는 외에도, 손으로 도면을 그리는등 번거로움을 컴퓨터가 대신하게 되고, 현재 地域에 따라 6가지로 되어있는 縮尺을 2가지(1/500, 1/1000)로 통합, 예산과 인력을 대폭 절감할 수 있게 된다.

小公洞 再開発計劃 확정 ——서울시

老朽建物철거, 景觀개선, 駐車場도

서울시는 5월28일, 中区 小公洞 일대(小公제4구역, 美都波百貨店 뒷쪽부터 朝鮮호텔앞까지) 5,200여평에 대한 再開発事業計劃을 결정했다.

이 계획은 ▲高層建物이 많은 이 지역의 駐車難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駐車施設을 마련하고 ▲원활한 車輛疎通을 위해, 이 일대를 가로 지르는 道路를 신설하며 ▲老朽建物을 철거하고 새建物을 지어 都心景觀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再開発内容은 ▲旧京鄕新聞社 건물 일대 450여평에 지하4층의 駐車場을 신설하고 ▲小公洞 103 10층駐車建物 앞에 새로 機械駐車施設을 갖추어 격증하는 駐車車輛을 수용하게 된다.

이 계획에 따라, 이 地域의 老朽建物인 天友社빌딩과 유니온빌딩이 철거되고 이자리에 각각 15층의 새 建物이 들어서게 된다.

서울시는 또, 이 일대의 원활한 車輛疎通을 위해 小公洞24에서 小公洞50까지 나비 8m, 길이 120m의 地区内 道路를 신설할 계획이다.

都心再開発구역내 建築行為 일부 완화
火災脆弱建物 改修가능——서울시

5월29일 서울시는 都心 再開発区域(예정구역 포함)및 및 特定街区整備地区 내에 적용해온 건축행위 제한을 일부 완화해주기로 했다.

이들 지역에서는 建物의 新·增·改築은 물론 大修繕 및 用途変更을 통제해왔으나 火災脆弱建物로서 消防施設 改修命令을 받고도 제한규정 묶여 施設改修를 못해 화재위험이 뒤따르게 되므로 관할구청 建築審議委員会 심의에 통과한 건물에 한해서 火災脆弱部分을 施設改修 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 改修는 同害議委가 정해준 火災脆弱施設改修범위내에서 不燃材를 사용, 철거가 용이한 구조로 해야 한다.

同 범위는 ▲防火壁 또는 防火区劃을 위한 벽, ▲主階段 또는 避難階段, ▲木造건축물의 기둥 및 보, ▲지붕구조체, ▲可燃性 内製材등을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등이다.

서울시는 또 이와함께 이들 地域内에 있는 都心不適格施設로서 都心外廓으로 이전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理·美容業所·薬局·医院·簡易飮食店·大衆飮食店등 近隣生活施設과 卓球場·事務室·旅館·旅人宿·製菓店·茶房 등에 한해 用途変更을 해주기로 했다.

駐車場整備地区 대폭 해제——서울시
4大門안·永登浦都心은 제외

서울시는 5월30일, 서江南·北地域을 비롯, 서울시 일원에 걸쳐 지정되어있는 駐車場整備地区를 크게 줄여 ▲江北 四大門안 都心地域과 ▲永登浦区 中心地域을 제외한 全地域을 駐車場整備地区에서 해제키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76년부터 서울시 대부분의 지역이 駐車場整備地区로 지정돼있으나 올해 駐車場設置條例가 새로 지정되면서 駐車場整備地区내의 신축건물등에 대한 駐車場確保規定이 강화되는 바람에 주차난이 심하지 않은 住居地域의 신축건물까지 강화된 규정에 따라 규제되는 등 不合理한 점이 많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현재 駐車場整備地区로 지정돼있는 江南·北地域등 총 8,400만평(280㎢)가운데 ▲江北 都心의 西大門~南大門~退渓路~往十里~新設洞~ 東大門을 잇는 273만평(9.2㎢)과 ▲永登浦로터리를 중심으로한 135만평(4.5㎢)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地域에 대해서는 駐車場整備地区에서 풀기로 했다.

서울시, 京仁運河計劃線 폐지를 요청
下水処理·建設費 문제로, 土地 6년간 묶어둬

서울시는 6월2일 江西区 加陽洞에서 京畿道 富川市 遠宗洞에 이르는 京仁運河都市計劃線을 폐지해주도록 건설부에 요청했다.

京仁運河는 74년 4월 京仁地区 特定開発計劃에 따라 計劃, 告示된것으로, 길이 6.3km, 나비 150m(총면적 283,000평)이다.

이같은 조치는 이 運河建設計劃이 서울댐(徳陽山입구 傍花洞)의 건설을 전제로 漢江에 물을 담을 계획아래 추진됐으나, 서울시의 下水施設構造가 개편되지않아 서울댐의 건설이 어려운데다가 막대한 建設費로, 사실상 運河建設이 어려워, 地籍告示도 않은채 6년동안이나 댐候補地 일대를 건축통제해 地主들의 財産権 행사에 큰 불편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京仁運河建設計劃은 漢江에서 遠宗洞을 거쳐 仁川앞까지 30km에 나비 50m의 運河와 運河 양편에는 나비 50m의 제방을 쌓아, 仁川에서 서울까지 貨物船등이 직접 운항토록 계획된 것이다.

住宅融資金 총 4,300億원으로 增額
景気浮揚·住宅建設促進위해

6월3일 관계당국에 의하면 住宅資金造成目標는 당초 3,300億원으로 책정됐으나 침체일로에 있는 景気를 浮

提하기 위해 1,000億원을 늘려 4,300億원으로 재조정하고 이를 모두 国民住宅資金과 一般住宅資金으로 방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소규모 庶民住宅을 大量供給한다는방침아래 住宅資金이 광범위하게 확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재 500만원으로 축소, 제한하고 25평 이하 住宅에 集中融資키로 했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금년 賃貸住宅 建設量을 당초계획보다 10,000가구 더늘리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財政支援策으로 政府投資事業의 優先順位를 재조정하여 住宅事業을 早期執行할 방침이다.

土地去来許可基準등 議決——국무회의
住居·準住지역 27평, 住專·商業지역 60평이상

국무회의는 6월3일, 国土利用管理法施行令 改正令案을 의결, 土地投機規制区域内에서의 土地去来許可規模, 去来許可時地価의 범위 등을 확정했다.

이날 통과된 改正案에 따르면 土地投機를 막기위한 土地去来契約許可규모는 都市計劃区域内의 경우 ▲住居専用地域·準工業地域·商業地域·生産緑地地域은 60평이상, ▲住居地域·準住居地域·地域의 지정이 없는 구역은 27평 이상, ▲専用工業地域·工業地域은 100평 이상으로 하고, 都市計劃区域外는 150평 이상, 農地 300평이상, 林野 600평 이상으로 확정했다

또 去来許可時 地価의 許容범위는 去来契約予定金額이 基準地価에 의해 산출된 금액의 120% 내를 適正価로 간주키로로 했다.

그러나 ①工地収用法上 土地의 収用·使用, ② 競賣法에 의한 경매, ③公共事業에 필요한 土地의 取得 또는使用, ④土地区劃整理事業法에 의한 換地処分 및 替費地등의 賣却등엔 去来契約許可対象에서 제외된다.

이 개정안은 또 土地去来契約許可 規模 이하로 土地를 분할하는것을 제한, 탈법행위를 막도록 했다.

土地所有·利用権 분리가 급선무——KDI
現制度는 地価폭등·投機조장 등

韓国開発研究院(KDI)이 5차 5개년 계획작성을 위해 6월4일 주최한 경제사회정책협의회에 제시한 "住宅 및 土地部門 토의자료"에 의하면, 地価가 내무부의 課税時価標準額·건설부의 基準地価·국세청의 基準価格·감정기관의 鑑定価格·지방자치단체의 補償価格·実際去来価格등 7종에 이르고, 土地税制도 譲渡所得税·取得税·登録税·財産税·相続税·贈與税등으로 다원화되어있어 地価安定과 投機방지, 土地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의 구실을 못하고 있는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金融機関의 不動産担保 貸出制度로 企業의 遊休土地保有를 증가시키고, 土地利用計劃이 변경되거나 特定地域이 공공기관에 의해 개발될 경우, 開発利益의 적절한 還収장치가 없어, 開発利益이 私有化되는등 土地投機 不労所得発生, 所得 불균형 심화의 원인의 되고있다.

이같은 土地利用規制의 소극성, 土地所有権과 利用権의 未分化 등으로 지난 70년 이후 10년간 都売物価指数의 年平均上昇率이 15.9%인데 비해 주요도시 綜合地価指数 年平均増加率은 31.1%로 地価가 物価의 2배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78년현재 法人의 非業務用土地는 2,432인이 25,331,000평을 보유하고 있으며, 空閑地도 1,687인이 1,125,000평이나 가진것으로 나타났다.

住宅部門에 있어서도 지난 65년이후 연평균 垈地価格指数上昇率이 30.1%로 物価上昇率을 2배이상이나 앞질러 내집마련을 더욱 어렵게 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住宅資金供給에 있어서도 財政投融資가 저조하고, 金融의 與信規制로 住宅部門에서 조성된 자금조차 住宅資金으로 공급하지못해 80% 이상을 民間自力調達에 의존, 住宅普及率이 79년말 현재 76.5%에 불과한 실정이다. 7

住宅普及의 저조로 1호당 居住人数가 2, 3명으로선진 외국의 1명미만보다 훨씬 많고 住宅投機가 성행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光州地下살롱火災 23명 死亡
有毒가스로 거의가 窒息

6월5일 밤 10시50분경, 光州市 万年莊旅館 지하실 洋酒코너 거북장의 출입구 바로 윗쪽에 붙은 配電盤에서 発火하여 · 50평의 지하실 내부가 모두 연소하고, 손님 17명, 주인 및 종업원 6명등 모두 23명이 질식하거나 불에 타 숨지고 2500만원의 재산피해를 냈으며 30분만에 진화되었다.

이 地下 洋酒코너는, 바닥은 합성수지계의 융단, 벽도 합성수지재료와 合板등 有毒가스를 발생하는 引火性 材料로 内装되어 있었다. 또 2개의 出入門은 여닫이가 아닌 미닫이식이었고 이와 직결된 계단폭은 1.5m, 경사도 30°의 급한것이었다.

불이 났을때 홀 안에는 밴드소리가 요란해 안쪽 密室에 있던 손님들은 "불이야"소리를 듣지 못한채 삽시간에 홀이 불길에 휩싸이자 빠져나갈 길을 잃고 질식했다. 또 消防車가 출동했으나 합성수지재료에서 뿜어나오는 有毒개스때문에 접근이 어려워 진화작업이 늦어졌다고 한다.

建設業体 덤핑受注늘어, 不実工事우려
不況따른 雇傭維持등 위해——조달청분석

6월7일 調達庁에 따르면 올들어 不況이 장기화됨에 따라 民間建設需要가 줄고, 海外建設人力이 반입되자 業界는 装備嫁動·雇傭維持 등을 위해 덤핑受注를 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현재 内定価의 85%가 損益分岐点 인데도 평균 70~75%線에서 응찰하고 있으며 심지어 60%이하까지 내려가 差額保証金이 先給金을 상회하는 사태마저 발생, 資金難 타개에도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지난 6월3일 西江大橋 1차工事入札이 내정가의 61.33%인 3억6천만으로 응찰한 現代建設에 낙찰되었다. 또 5월에는 土地開発公社의 工業団地造成工事에 三扶土建이 예정가의 58%인 20억원에 낙찰, 10억원 상당의 差額을 걸었다. 또 6월에 들어 라이프住宅이 원호처의 援護病院工事를 71.4%인 6억9백95만원에 낙찰하는등, 대부분의 공사에서 낙찰자의 差額保証金이 불가피한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調達庁은 이처럼 채산성도 감안하지않은 덤핑현상이종래의 細続工事에 대한 縁故権 획득보다 遊休人力活用에 있다고 지적, 장기적으로 업계의 不実化를 우려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지난해부터 현행 最低入札制를 개선하기 위한 予算会計法 관계조항을 改正作業中에 있는데 늦어도 연말까지 확정 실시될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共同住宅団地내 路幅 조정 ——건설부
1000家口 이상인때 18m로

6월7일 건설부가 제정 공포한 "住宅建設基準에 관한 規則"에 의하면, 共同住宅団地의 家口数에 따른 団地進入道路의 路幅은 1,000가구 이상이 18m, 1,000가구 미만이 12m로 되어있던것을 細分化, 500가구 이상 1,000가구 미만 12m, 300가구 이상 500가구 미만 10m, 300가구 미만 6m로 규정했다.

家庭燃料消費실태 조사
연탄아궁이, 연탄보일러, 기름보일러 순으로 많아

6월7일 韓国熱管理試験研究所가 조사한 家庭燃料消費実態에 따르면 79년 현재 都市 単独住宅은 연탄아궁이의 경우 年間煙炭消費量은 평균 1,420개로 120,700 원의 연료비를 지출했고, 煉炭보일러의 경우 연탄 1,800개를 사용, 153,000원을 지출했으며, 기름보일러는 평균 2.400ℓ를 사용 228,000원을 지출했다.

都市아파트는 연탄아궁이의 경우 年間平均 1,350개 의 연탄을 사용 114,750원, 연탄보일러의 경우 1,400개에 119,00원, 기름보일러의 경우 3,000ℓ를 사용, 267,000원을 각각 지출했다.

한편 農村住宅은 신탄아궁이의 경우 연평균 4.5t의 장작을 사용했고, 연탄아궁어의 경우 연평균 500개를 사용, 42,500원을 지출했으며, 연탄보일러는 800개를 사용, 68,000원, 기름보일러는 2 200ℓ에 225,200원을 각각 연료비로 지출했다.

83년까지 病床 2万4千개 新設
금년엔 2千40개 건설, 387億원 支援

정부는 6월9일 전국적으로 균형있는 의료공급체계를 구축하기위한 계획으로 83년까지 地方中小都市에 총24,000개 病床의 民間病院 病床 2,040개를 건설하는데 필요한 内外資 387.6億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같은 계획에 따라 保社部는 医療施設의 부족한 21개 市郡에 설치될 病床 80~150개 규모의 民間病院 建立資金으로 建築費 内資 265.2億원 医療装備購入費 外資 122.4億원의 융자계획을 마련, 6월중 경제장관협의회를 거쳐 7월부터 자금지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이들 民間病院은 해당지역의 수명의 개업의사등으로구성되는 聯合病院 형태의 医療法人을 실수요자로 하거나, 大都市에 있는 民間綜合病院, 私立医科大学附属病院 또는 지방장관이 적격자로 추천하는 医療法人의 계열병원으로 설치된다.

아파트분양 재당첨 規制 완화
금지기간 1~2년으로 단축검토

6월9일 건설부에 의하면, 당초 아파트 3년내 재당첨 금지조치의 철폐가 검토됐으나, 그럴 경우 일부 인기아파트에 비해 仮需要者 및 投機꾼들에 의한 過熱景気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 조치는 존속시키되, 재당첨기간을 현재 3년에서 1년 또는 2년으로 단축할것을 검토하고 있다.

건설부는 이와 함께 未分譲아파트에 대해서는 당첨후 3년이 안된 사람도 분양을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技術用役業体, 零細운영 여전
国内業体 不信경향도——技術用役協조사

6월10일 技術用役協会가 188개 기술용역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엔지니어링産業의 現況 및 青成方案에

따르면, 등록업체중 68%가 넘는 127개업체가 技術人力 50명 이하로 구성돼 있으며, 이중 15개 업체는 技術人力이 10명도 안되며, 300명 이상의 技術人力을 보유한 업체는 16개사에 불과했다.

또 資本金규모면에서도 33%가 넘는 64개 업체가 2,000만원이하이며, 2000~3000만원이 36개 업체로 나타나 技術人力뿐만 아니라 資本面에서도 영세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技術能力水準은 詳細設計·구매검사·建設監理·프로젝트 管理面에서는 国内技術이 주축이 되어 실시되나, 基本設計·試運転·性能保障등의 기술은 여전히 外国技術에 의존되고 있는것으로 나타나 技術蓄積이 요망되고 있다.

이 조사에서는 또 国内엔지니어링産業이 육성되지 않고있는 문제점으로, 規模의 영세성과 技術水準의 취약성, 用役発注者의 国内用役業 不信경향, 外資導入事業에 따른 用役参與의 기회 제한, 機械工業 등 관련산업의 제품 国際水準 미달 등을 들고, 国内用役은 国内業体에 우선 발주하고 外資導入에 따른 用役도 国内業体를 主契約者로 참여시키며, 業体에 대한 税制·金融上의 지원, 기술용역대가의 適正化등을 유도시켜 줄 것을 주장했다.

朝鮮中期이전의 木造建築 3점, 새宝物로 지정

花嚴寺의 雨花樓·極楽殿, 安心寺의 大雄殿

文公部는 6월11일, 6점의 宝物을 새로 지정하였는데, 이것들은 古美術·建築·宗教史的인 면에서 뒤늦게 평가받은 귀중한 文化財들이다. 이중 3점의 建築物은 朝鮮中期 이전의 木造로 建築史 정립에 희귀한 자료들이다. 즉,

全北完州 花嚴寺는 이번 지정으로 2점의 宝物을 갖게 되었는데, 蓮花紋唐草紋등 조각이 섬세한 朝鮮中期前 건축물이 雨花樓(宝物 662호)와 極楽殿(宝物 663호)이다. 雨花樓는 正面 3間, 側面 2間의 内外 3出目 多包系의 맞배지붕 건물(28.82평)이며, 極楽殿은 正面 3間, 側面 3間의 8각지붕의 건물(19.42평)이다. 특히 이 極楽殿은 下昂構造様式으로 建築史 研究에 귀한 資料이다.

宝物 664호로 지정된 忠北清原 安心寺 大雄殿은 花嚴寺 雨花樓様式과 같은 3出目 多包系이나 규모는 약간 작다(15.59평).

나머지 3점의 宝物은 石造文化財로서 統一新羅時代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는 尚州 石刻天人像(보물 661호), 慶州의 狼山 磨崖三尊佛(보물 665호)과 三陵溪 石佛坐像(보물 666호)이다.

82년까지 71개市邑 都市計劃 재정비

서울·釜山등 43개市는 내년까지 확정

6월11일, 건설부에 따르면 지난 60년 37%에 불과했던 都市化率(전국 人口에 대한 都市人口의 비)이 70년에 50%, 78년에는 63%로 늘어났고, 오는 91년에는 77%로 높아져 새로 늘어나게될 1,170만의 都市人口를 수용하기 위해 전국 42개 市級都市와 현재 人口 2만이상의 邑등을 포함 71개 都市에 대한 都市計劃을 全面 再整備키로 했다.

오는 91년도를 目標年度로한 都市計劃再整備는 우선 1단계로 半月·麗川을 포함한 서울·釜山등 전국 42개 市級都市를 81년말까지 마무리짓고, 나머지 29개 邑級都市는 오는 82년말까지 再整備計劃을 확정지을 방침이다.

건설부는 이를 위해 오는 9월말까지 都市計劃再整備를 위한 基本指針으로, ①都市別 目標人口, ②都市機能, ③都市施設基準, ④生活環境基準등을 마련, 사달하였다. 이번 都市計劃 再整備에는 公聴会등을 열어 地域住民의 뜻을 충분히 반영한 후, 計劃案을 만들어 건설부에 보고토록 했다.

건설부는 60년대부터 급속한 工業化에 따른 都市人口의 集中으로 서울·釜山·仁川·城南·富川·光州·木浦·麗水·江陵·郡山 등 10개 都市는 앞으로 10년 뒤엔 住居地域 부족현상이 심화될것으로 보고 都市計劃의 再整備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先進外国의 경우 都市化率이 대부분 80%이상으로 한계에 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都市化率이 낮아 앞으로 20여년간 都市化現象이 계속될것으로 보고 있늬. 다

우리나라 人口 3千7百60萬——79년말

男子가 31万 9千이 더 많아

79년말 현재 우리나라 人口는 3,760.5만으로 잠정 추산되어 人口増加率이 1.58%에 달한것으로 추계되었다.

経済企劃院이 발간한 주요경제지표에 따르면 男子는 1,896.2만, 女子는 1,864.3만으로 男子가 31.9만이 더많아 男女比率은 101.7대 100이 됐다. 1㎢당 人口密度는 380.3인으로 전년보다 5.5인이 늘었다. 그러나 人口増加率은 78년의 1.60%에서 0.02% 떨어졌다.

79년말 현재 上水道普及率은 55%, 給水量은 1인당 하루 240ℓ, 自動車는 494,378대로 인구 155,8인에 1대, 電話는 100인에 6.3대, 国道鋪装率은 60.7%였고 医幅 1인당 인구는 1,767인으로 집계되었다.

그린벨트管理 더強化, 解禁説은 사실무근

建築景気 浮揚策은 안써——崔建設談

崔鐘沇건설부장관은 6월14일, 지난 4월만 현재, 建築受注実績이 작년보다 20% 앞서 있기때문에 建設業景気 부양을 위한 특별대책은 세우지않겠지만 말했다. 다고

또 최근 그린벨트 완화설이 나돌고 있는것은 전혀 사실무근이며, 다음 주부터 건설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 대규모 合同調査班이 首都圈과 釜山圈의 그린벨트에 대한 중점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全国土의 5.5%, 5,397km²의 그린벨트 지역은 절대적인 것으로, 필요한 경우 그린벨트 안의 施設許容基準을 조정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것 이라고 말했다.

崔장관은 앞으로 장기 도시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린벨트지역은 오히려 확대될 가능성마저 있다고 말하고, 지난 71년 그린벨트지역이 있다고 말하고, 지난

고, 그린벨트지역이 지정된 이래, 지금까지 단 한평도 해제한 사실이 없으며, 작년 중에만도 不法施設 철거 632건, 이에 따른 공무원 문책이 476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밖에 아파트의 3년내 재당첨폐지 검토할 문제라고 했다.

239億원 들여 国立病院 3개 新設계획

260億원들여 母子保健센터도——보사부

6월14일 保社部에 따르면 총 239億원을 들여 結核病院·癌病院·精神病院 등 각 1개씩의 国立病院을 짓기로 하고, 81년도 基本運営計劃에 반영, 현재 경제부처와 예산관계를 협의중이다.

한편 保社部는 이밖에도 81년도 기본운영계획에 총260億원을 들여 전국 母子保健센터 建立을 비롯, 84億원을 들여 民間 地域病院 建立支援을 해줄 방침이다.

技術用役料率基準 제정계획——技術用役協

올해 9월까지, 先進国 資料 수집중

韓国技術用役協会는 올해 사업계획의 일환으로 6개 기술분야에 대한 技術用役代価(料率)基準을 오는 3/4분기중에 제정할 계획이다.

6월14일 同協会에 의하면 技術用役代価(料率) 基準은 현재 建設·通信 등 2개 분야만 제정, 시행되고 있어 未制定分野에 대한 技術用役代価의 합리적인 접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따라 技術用役協会는 전기·기계·건축·설비·선박·원자력 등 6개분야에 대한 技術用役代価(요율)를새로 제정키로하고 현재 188개 会員社를 대상으로 미국·일본 등 선진 각국의 料率適用方法·算出根拠 등 각종자료를 수집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느정도 적정자료가 입수되면 기술용역대가(요율)심의위원회가 소집, 늦어도 오는 9월말까지 이들 分野에 대한 技術用役代価(料率) 基準을 제정할 계획이다.

현재 제정 시행되고있는 建設部門의 料率은 2.53%(공사비 100억원이상)에서 7.98%(공사비 1,000만원)까지이다. 通信部門의 料率은 2.80%(공사비 100억원이상)에서 26.62%(공사비 1,000만원)까지로 돼있으나 기획 및 설계의 난이도, 비교설계의 유무, 도면 기타 자료작성의 복합성, 제출자료의 수량 등을 참작, 조정할 수 있고, 현지측량·지적측량등 부대업무에 수반되는 비용은 별도로 지급토록 돼 있다

서울人口 80년말——850만 ……세계15위

2,000년에는 1,420만 예상——UN報告書

80년말의 서울人口는 850만으로 세계 제15위에 머물게 될것이나 2,000년에는 약2배에 가까운 1,420만을 기록 세계 제11위의 大都市로 팽창하게 될것이라고 유엔 人口調査基金(UNFPA)이 6월15일, 밝혔다.

UNFPA는 일자리없는 지방주민들이 취업을 위해 도시로 집중, 都市의 人口増加가 加速化됨으로써 1950년에 6개에 불과했던 人口 500만 이상의 大都市가 30년이 지난 오늘날 26개로 늘어났으며, 오는 2000년에는 60개로 급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괄호안은 80년말 기준)

①멕시코시티=3,100만(③ 1,500만) ②상파울루=2,580만(④ 1,350만) ③東京=2,420만(② 2,000만) ④뉴요크=2,280만(① 2,040만) ⑤上海=2,270만(⑤ 1,340만) ⑥北京=1,990만(⑦ 1,070만) ⑦리오데자네이로=1,900만((⑧ 1,070만) ⑧봄베이=1,710만 ⑨캘커타=1,670만(⑭ 880만) ⑩자카르타=1,660만 ⑪서울=1,420만(⑮ 850만)

首都圈人口再配置計劃 全面修正 불가피

行政首都計劃도 再調整키로

정부는 지난 77년 9월, 확정 발표한 "首都圈 人口再配置 10個年計劃"(77~86)이 비현실적이라고 판단, 이를 전면 수정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首都圈人口再配置計劃에 관한 用役을 이미 서울大学校 環境大学院에 유탁하였으며, 이와함께 行政首都 移転計劃도 일부 조정할 방침인것으로 알려졌다.

金佐謙 제1무임소장관은 6월16일 "당초 首都圈人口를 81년에 800만선으로 유지시켜 86년에는 行政首都建設과 함께 76년 수준인 700만선으로 감소시킬 계획이었으나 79

년말 현재 이미 800만선을 넘어섰기때문에 현실에 맞도록 수정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不良住宅철거등 減失이 住宅難 악화

10년간 173萬戶건설하고 59萬戶減失

6월16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지난 70~79년까지 10년동안, 住宅建設家口数는 모두 4,735,000家口에 달하고 있으나 이에 34.4%에 해당하는 597,000家口가 減失돼, 실제 住宅增加数는 1,138,000家口에 그친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住宅減失量이 최근 들어 더욱 증가, 지난 78년의 경우 100,000家口, 79년의 경우 107,000家口가 감실됨으로써 住宅保有家口数에 대한 減失家口数의 비율인 減失率이 두해 모두 2.0%라는 높은 수준까지 올라갔다.

이처럼 감실되는 住宅이 많기때문에 열심히 신축하여도 住宅事情은 날로 악화되는 추세를 보여, 住宅普及率이 지난 70년의 77.8%에서 79년에는 76.5%로 낮아졌다.

정부는 이에따라 住宅減失을 가급적 줄이기 위해, 이의 가상 큰 原因이 되고있는 都市開発事業이나 農村聚落構造改善事業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으며, 不良住宅이나 無許住宅도 무조건 철거하는것 보다는 경우에 따라 修理하거나 陽性化시킨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世銀을 비롯한 관련 国際専門機関들은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 대해 住宅難을 완화하려면 住宅減失을 줄이도록 권고해 왔다.

81년부터 2億달러규모 住宅借款 계획

15평이하 庶民아파트 建設에

6월18일 관계당국에 의하면 정부는 당초 앞으로 10년간 해마다 1億달러규모의 住宅借款을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81년부터 연간 2億달러규모로 배로 늘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미 世銀(IBRD)아시아開発銀(ADB)등 국제금융기관과 협의중인데 반응이 좋아 빠르면 81년부터 실현될 가능성이 있는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는 이 借款資金을 15평 이하의 庶民用住宅 특히 賃貸아파트建設에 중점 투입할 계획이다.

81년도에 도입될 住宅借款은 도입이 확정된 ADB借款 5,000萬달러를 비롯 약 1億달러에 달할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土地基本法 제정 추진

不動産投機抑制 보완대책——企劃院

6월19일 관계당국이 마련한 不動産投機防止 補完対策에 따르면, 정부가 土地에 대한 종합적인고 원천적인 사항이 규정된 土地基本法을 만들어 土地의 公概念 導入 및 土地의 所有権·利用権 분리를 규정할 계획이다.

不動産投機防止対策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土地投機心理가 일어나지 않도록 인플레대책이 적극화, ▲長期綜合土地利用 및 住宅供給計劃 수립, ▲公共機関 分譲住宅가격을 대폭 낮추도록 각종 建築資材의 廉価供給方案 모색, ▲投機利益을 모두 세금으로 흡수, ▲地価告示制 확대실시, ▲不動産去来 秩序확립을 위한 제도적 조치 강화, ▲不動産紹介業의 許可資格制와 官認契約書제도 조속실시, 不動産去来仲介人(복덕방)의 公正去来준수사항 法定化.

전국 17개都市 宅地難 대책 서둘러야

残余住宅地比率 41.2%에 불과

6월19일 건설부에 의하면 지난 78년 현재 전국 36개 都市의 住居地域은 27,300千坪이며, 이중 이미 건축된기존주택지는 16,100千坪, 아직 남아있는 잔여택지는 11,200千坪으로 残余住宅地比率이 41.2%를 기록, 都市地域 전체의 住宅不足率 38.5%를 상회, 어느 정도의 여유를 보이고 있으나, 이중 서울·釜山등 인구 50만을 넘는 17개 都市의 경우 残子住宅地比率이 住宅不足率보다 낮아 앞으로 宅地難이 예상되고 있다.

残余宅地比率이 住宅不足率보다 낮다는 것은, 앞으로 신축주택의 평균면적이 기존주택의 평균규모와 같은 수준에 머문다고 해도 宅地難 해소가 어렵다는것을 의미한다.

잔여택지비율이 주택부족율보다 낮은 17개 都市는 ▲서울·釜山·大邱·光州·大田등 人口 50만이 넘는 대도시, ▲仁川·水原·安養등 3개 수도권 위성도시, ▲全州·済州·原州·江陵·木浦·金泉·安東·鎭海·忠武등 9개 중소도시이다.